

##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김 순 구 · 박 정 순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lothing Behavior —For Adult Males and Femalse—

Soon-Ku Kim · Jung-Soom Park

Dept. of Clothing & Texile, College of Home Economics, Busan National University  
(1990. 7. 24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mographic variables of adult males and females upon clothing behaviors.

Th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49 unmarried females, 202 married females, 228 unmarried males, 179 married males in Pusan.

The data was analyzed statisitically using to Pearson's correlation, t-test,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Conformity, Modesty, Management of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except Interest-Modesty, Conformity-Aesthetics, Conformity-Fashion, Modesty-Psychological dependence and Modesty-Aesthetics.

2.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esteem and all clothing behavior subscales except Conformity according to sex.

3.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Fashion, Conformity and Modesty according to marriage status.

4. Sex and school career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steem. Sex have significant effect on Importance, Interest, Modesty, psychological dependence, Aesthetics, Management and Fashion. School career significant effect on Conformity and income effect on Fashion.

5. Sex and school career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steem as intervening variables, the clothing behaviors as dependent variables. Sex, age, school career and income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clothing behavior subscales.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의복은, 인간생활수단의 의미를 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며, 한 사회 안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해 준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의복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연구과제로 다루고 의복이 개인의 사회·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제요인까지도 나타내주는 단서임을 밝혀주고 있다. 의복의 동기이론이나 의복과 사회 및 의복과 개인의 특성 간에 나타나는 관련성은 의복행동이 개인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이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Ryan은 의복이 자아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의복은 신체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또한 자아존중과 타인으로부터의 수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체의 특성이 의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sup>4)</sup>고 언급하였다. 학령기아동의 자아존중이 의복행동에 관련있음을 보여준 고은기<sup>4)</sup>의 연구와 본 연구자(1985)<sup>5)</sup>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연구,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강경자와<sup>6)</sup>의 연구에서도 성인여성의 자아존중의 정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보여주었으며 최근의 정희용과<sup>7)</sup>는 노년기여성의 자아지각에 대한 의복관심을 규명하였다. Winaker, Conton and Wolins<sup>2)</sup>는 대학생의 fashion risk와 자아존중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며 Humphrey와<sup>3)</sup>는 자아존중과 불안감이 의복행동과 관련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이와 같이 총자아긍정 혹은 자아지각의 긍정적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이 의복관심과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이들의 관련성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아동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전연령층에서 그 관계를 볼 수가 있다. 물론, 이들 연구 결과에서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문화적·연령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자아존중이 상황적 요구와 구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관련을 성별과 연령 및 환경적 요인과 연관시켜 심층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긴다.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여럿 있으나 성인과 노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성인기는 자아정체가 정립되어 자기자신이 생활의 주체이며 자아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확립되어

진 시기라 여겨지며 따라서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에 관한 특성도 어떤 시기에서보다도 두드러진 결과를 보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인 제요인들이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며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2. 결혼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4. 성인 남·녀의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 이론

자아존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다. Coopersmith<sup>8)</sup>는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 또는 판단”이라 하였고 Gecas<sup>9)</sup>는 “자아의 평가적 측면”으로 Newman & Newman<sup>10)</sup>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한편 Wells와 Marwell<sup>11)</sup>은 인간의 평가적 태도가 종종 감정적 요소를 수반함을 지적하면서 자아존중의 의미에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었음을 주장하여, 인간의 자아개념화에서 평가적·판단적·감성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이라고 명명되는 과정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은 자아개념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적·판단적·감성적 요소를 내포하는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으로 판단된다. 즉, 자아존중은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개념이라는데 그 의미에 있어서 평가적·감정적 요소가 내포되므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자아를 주제로 한 많은 연구에서 자아개념보다 자아존중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연구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sup>12)</sup>. 대체로 자아존중이 높은 사람은 자기자신이 가치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고, 자아존중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열등감이나 불확실감을 갖게 되어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피적인

성향을 지니며 자기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느껴 자신을 무가치한 인물로 느껴 행동도 소극적이 된다<sup>13)</sup>. 이러한 자아존중은 연령, 성별, 주위 사람들의 태도, 학교의 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취업 상태, 부모의 양육태도 등과 다소 관련성이 있으나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들고 있다.<sup>14,15)</sup>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룬 연구들<sup>16~18)</sup>에서 그 차이가 없는 경우, 남자가 높다는 결과도 있으나 여학생이 높은 경우도 보여 그 일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태도에 의해 정적 강화 혹은 부적 경화를 가져온다고 한다<sup>19)</sup>.

## 2. 자아존중과 의복행동

자아존중은 Maslow의 기본욕구단계에서는 높은 차원의 욕구이며 자신감과 열등감,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 등과도 관계하는 것으로 자아존중의 정도에 따른 의복관심과 의복선택에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들에서 명백히 볼 수가 있다. 아동기에 있어서 Hurlock은 아동이 의복의 상징성을 인식하며 신체적 매력이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복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되어 선호의복착용시 정서안정과 자아존중에 높은 기여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차원이나 보호자의 선호로 의복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상실감을 갖게 되고 자아확신이나 자아존중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sup>20)</sup>.

또 고은기의 연구<sup>4)</sup>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여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의복의 자립성, 관리성이 높았고 낮을수록 또래집단에 대한 의복동조성이 높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umphrey<sup>3)</sup>는 자아존중과 불안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연구에서 자아존중이 의복행동간에 가장 크게 존재하는 요소임을 지적했고 Drake와 Ford<sup>21,22)</sup>는 자아존중이 높은 여학생일수록 의복실험을 즐기며 의복홍미가 높으며 Parrish<sup>23)</sup>는 자아지각이 낮으면 동조성이 높은 경향이라 보고했다. 남녀 고교생을 연구한 본 연구자<sup>5)</sup>의 결과에서는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심미성과 관리성은 높아지고 홍미성, 심리적 의존성, 사회적 승인, 주의집중성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이경손 외<sup>24)</sup>는 성인남성에 있어서 총자아긍정과 의복만족도와는 정적상관임을 밝혔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

소연 외<sup>25)</sup>는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집단은 개성과 경제성을 중시했고 부정적인 집단은 동조성을 중시했음을 지적했다. 노년기여성의 연구<sup>7)</sup>에서도 자아에 대해 긍정적지각을 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 유행에 대한 관심과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강경자 외<sup>9)</sup>의 결과에서는 Maslow 욕구 중 자아존중의 욕구가 모든 의복가치관에 영향을 주어 자아존중욕구가 의복가치판 결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 1) 자아존중 측정

자아존중검사는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고 국내연구<sup>12,26)</sup>에서 사용한 문항과 비교하여 수정한 10문항을 4단계 척도로 사용하였다.

#### 2) 의복행동 측정

의복행동은 중요성, 홍미성, 동조성, 정숙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의 8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Creekmore의 "Method of Measuring Clothing Varrables"를 기준으로 하여 원미경, 최혜선, 박은주, 이금실, 강혜원과 본 연구자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부산시내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1990년 5월 10일~5월 15일)를 실시하여 그 중 39문항을 선별하였다. 의복행동 8하위척도 각각의 문항간 Combach의  $\alpha$  계수는 0.8이 상이었다.

#### 3) 인구통계학적 사항

성별, 결혼여부, 연령, 직업유무, 교육받은 기간, 주거지역,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 종교의 8항목이었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만 19세~55세의 남녀 1000명을 구별 비례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1990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중 자료처리에 사용한 설문지는 858명이며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202명, 미혼남성 228명, 미혼여성 249명이었다.

자료분석은 문항검정을 위해 Pe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했으며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기 위해 T-test를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표집대상의 분포와 자아존중 및 의복변인의 점수 분포

<표 1>은 표집대상의 성별·결혼여부·연령·주거지

<표 1> 표집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빈도(%)	f	%
성별	남	407	47.4
	녀	451	52.6
결혼여부	기혼	381	44.4
	미혼	477	55.6
연령(세)	19~29	533	55.0
	30~39	177	20.6
	40~49	93	10.7
	50~55	55	6.4
주거지역	아파트	225	26.2
	단독주택	442	51.5
	상가	43	5.0
	기타지역	148	17.2
직업유무	유	410	47.8
	무	448	52.2
교육정도 (년)	0~6	14	1.6
	7~9	69	8.1
	9~12	247	28.8
	13~16	503	58.6
	17	25	2.8
월평균 총수입	30만원 미만	50	5.8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12	13.1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	260	30.3
	7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131	15.3
	9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25	14.6
	100만원 이상	180	21.0
종교	종교 없음	343	40.0
	기독교	173	20.2
	천주교	71	8.3
	불교	261	30.4
	원불교	2	0.2
	천도교	2	0.2
	기타	6	0.7

역·직업유무·교육·수입·종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아존중의 점수분포(가능한 점수 범위)는 13~40(10~40)이었고 의복행동에서는 중요성 6~16(4~16), 흥미성 5~20(5~20), 동조성 5~16(5~20), 정숙성 5~20(5~20), 심리적 의존성 5~20(5~20), 심미성 5~20(5~20), 관리성 7~24(6~24), 유행성 4~13(4~16)이었고, 점수의 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 2. 인구통계적 변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변인간의 상관

<표 2>에서 자아존중과 유의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는 의복행동은 동조성·정숙성·관리성이며 동조성·정숙성은 부적 상관이었다. 의복행동변인간의 상관을 보면, 중요성·관리성은 모든 의복행동변인과 상관이 있으며 동조성은 심미성·유행성을 제외한 변인과 상관이 있었다. 정숙성은 흥미성·동조성·관리성·유행성과 심리적 의존성은 정숙성을 제외한 변인들과 상관이 있었고 심미성은 동조성·정숙성을 제외한 변인들과 상관이 있으며 유행성은 동조성만을 제외한 변인들과 상관이 있었다.

<표 3>은 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에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것으로 성별은 자아존중·중요성·흥미성·정숙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관리성·유행성에 상관을 보였으며 결혼여부는 흥미성·정숙성·유행성에 상관을 보였고, 연령은 자아존중·흥미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유행성에는 부적 상관을 동조성·정숙성에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주거지역은 동조성·유행성에 상관이 있었고 직업유무는 흥미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관리성에 상관을 보였다. 교육은 동조성·정숙성·관리성에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수입은 정숙성에 부적 상관을 유행성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종교에 따라 정숙성에 정적으로 심미성, 유행성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의 차이

<표 4>에서 자아존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의복행동 중, 동조성은 남·녀 차이가 없었고 중요성·흥미성·정숙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관리성·유행성의 모든 변인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1985년

〈표 2〉 자아존중과 의복행동변인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자아존중	(1)								
중요성	(2)	.060							
홍미성	(3)	-.064	.509***						
동조성	(4)	-.182***	.159**	.155**					
정숙성	(5)	-.111**	.098**	.033	.193***				
심리적 의존성	(6)	.054	.528***	.672***	.178***	.061			
심미성	(7)	.074	.482***	.678***	.034	.015	.688***		
관리성	(8)	.099**	.451***	.578***	.101**	.118**	.566***	.639***	
유행성	(9)	.044	.298***	.477***	.041	-.279***	.459***	.476***	.341***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과의 상관계수

인구 통계학적 변인	의복행동변인								
	자아존중	중요성	홍미성	동조성	정숙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성별	-.0950**	.2707***	.5170***	.0356	.1796***	.3842***	.4176***	.3815***	.2982***
결혼여부	.0483	-.0150	.1095***	-.0631	-.2358***	.0688	.0545	-.0440	.1627***
연령	-.0806	-.0440	-.1987***	.0875**	.2979***	-.1419***	-.1255***	-.0174	-.2211**
주거지역	.0003	.0342	.0448	.1568***	-.0446	.0549	.0221	.0572	.1008
직업유무	.0378	.0444	.1260***	.0116	-.0594	.0818*	.0869**	.0837*	.0767
교육	.1604	-.0006	.0035	-.1852***	-.2060***	-.0022	.0060	-.0918*	.0680
수입	.0979	.0345	.0214	-.0428	-.1441***	.0682	.0386	-.0124	.1530***
종교	-.0303	-.0390	-.0367	.0414	.1322***	-.0715	-.365***	.0070	-.0924**

\* P &lt; .01    \*\* P &lt; .005    \*\*\* P &lt; .001

연구자<sup>5)</sup>와 김영준<sup>18)</sup>과 일치하지만 대상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자아존중형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sup>12,14,15)</sup> 과거의 가부장적 전통 교육에 의한 남아선호가 남자는 우월감을 여자는 자기비하적인 면을 크게 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의복행동에 있어서 동조성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이영선<sup>27)</sup>과 일치하며 다른 의복행동변인이 여자가 더 높은 것은 본 연구자<sup>5)</sup>와 김병미<sup>28)</sup>, Creekmore<sup>29)</sup>, Drake<sup>21)</sup> 등의 뒷받침되는 선행연구가 많다. 이는 의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성인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설명해 준다.

〈표 5〉에서는 자아존중이 기혼과 미혼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강경자외<sup>6)</sup>의 성인여성에 대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남·녀 전체에 대한 결과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며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의복행동 중에서 홍미성과 심리적 의존성, 유행성은 미혼이 높게, 동조성과 정숙성은 기혼이 높게 나타나 미혼여성이 개성을 중시하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경제성과 정숙성이 중요시된다는 연구<sup>25)</sup>를 뒷받침한다.

#### 4.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변인의 회귀분석

〈표 6〉은 성별·결혼여부·연령·교육·수입·종교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독립변인 중에서 성별 ( $\beta=0.081$ )과 교육 ( $\beta=0.11$ )이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은 높게 나타났다. 교육이 자아존중과 무관한 선행연구<sup>4~6,24)</sup>와는 차이를 보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이 높다는 결과<sup>14)</sup>와 학력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성이 높다<sup>30)</sup>는 연구와는 다소 관련있게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변인의 차이검정

		평균	표준편차	t-Value	
자아존중		남 녀	28.05 27.32	4.01 3.60	2.78
의	중요성	남 녀	11.00 11.85	1.56 1.48	8.23***
	흥미성	남 녀	11.98 14.73	2.49 2.06	17.50***
복	동조성	남 녀	11.22 11.33	1.55 1.59	1.04
	정숙성	남 녀	12.00 12.95	2.88 2.30	5.28***
동	심리적 의존성	남 녀	12.64 14.37	2.15 2.03	12.18**
	심미성	남 녀	13.13 14.88	1.97 1.85	13.45***
변	관리성	남 녀	16.52 18.22	2.31 1.82	11.93***
	유행성	남 녀	9.64 10.67	1.64 1.66	9.14***

〈표 5〉 결혼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과 의복행동변인의 차이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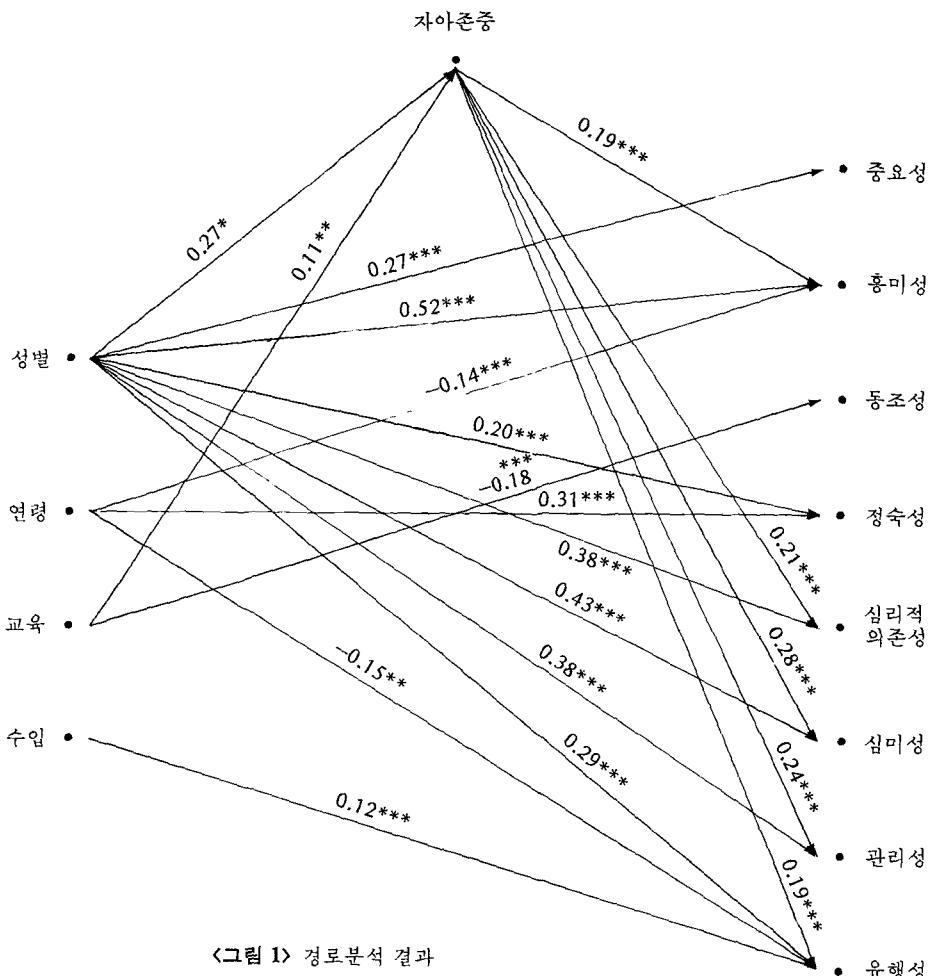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t-Value
자아존중		27.46 27.83	3.72 3.88	1.41
의	중요성	기혼 미혼	11.48 11.43	1.51 1.63
	흥미성	기혼 미혼	13.10 13.69	2.66 2.63
복	동조성	기혼 미혼	11.39 11.19	1.41 1.69
	정숙성	기혼 미혼	13.19 11.95	2.44 2.65
동	심리적 의존성	기혼 미혼	13.38 13.69	2.19 2.30
	심미성	기혼 미혼	13.92 14.15	2.04 2.14
변	관리성	기혼 미혼	17.52 17.33	2.12 2.32
	유행성	기혼 미혼	9.86 10.43	1.58 1.79

〈표 7〉은 자아존중·성별·결혼여부·교육·수입·종교를 독립변인으로, 의복행동 8가지 하위척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구분석결과이다. 중요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별( $\beta=0.27$ )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흥미성에는 자아존중( $\beta=-0.19$ ), 성별( $\beta=0.52$ ), 연령( $\beta=-0.14$ )으로 자아존중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적을수록 흥미성이 높아지는 결과였다. 동조성은 교육( $\beta=-0.18$ )이 낮을수록 높았고 정숙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beta=0.20$ ) 연령( $\beta=0.31$ )이 높을수록 높았다. 심리적 의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아존중( $\beta=-0.21$ )과 성별( $\beta=0.38$ )로 자아존중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심미성은 자아존중( $\beta=0.28$ )과 성별( $\beta=0.43$ )로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관리성은 자아존중( $\beta=0.24$ ) 성별( $\beta=0.38$ )로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유행성은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beta=0.19$ )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beta=0.29$ ) 수입이 많을수록( $\beta=0.12$ ) 연령이 적을수록( $\beta=-0.15$ ) 높게 나타났다. 고교생을

〈표 6〉 자아존중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자아존중	독립변인	F값	$\beta$ 값	F값	R <sup>2</sup>
자아존중	성별		0.081	5.31*	0.00903
	교육		0.11	8.85**	0.03460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이 정숙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흥미성·심리성·심리적 의존성·사회적 승인·주의집중성·관리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sup>5)</sup>와 자존감정이 높을수록 개성을 강조한다는 일본여대생 대상의 연구<sup>31)</sup>, 아동의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의복의 관리성은 높고 낮을수록 동조성이 높다는 결과<sup>4)</sup>, 성인 남성의 긍정적 자아평가가 유행과 정적 관계를 나타낸것, Maslow의 욕구단계 중에서 자기존중욕구가 의복의 이론적·심미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감각적·종교적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연구대상의 연령, 문화·지역, 표집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표 7〉 의복행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의복행동	독립변인	F값		
		$\beta$ 값	F값	$R^2$
중요성	성별	0.27	65.74***	0.0733
흥미성	자아존중	-0.019	14.09***	0.2314
	성별	0.52	296.91***	0.2672
	연령	-0.14	8.69**	0.2961
동조성	교육	-0.18	20.97***	0.0346
정숙성	성별	0.20	36.52***	0.0322
	연령	0.31	35.12***	0.1473
심리적 의존성	자아존중	-0.21	22.04***	0.1023
	성별	0.38	136.68***	0.1476
심미성	자아존중	0.28	25.12***	0.0997
	성별	0.43	172.93***	0.1743

관리성	자아존중	0.24	11.04***	0.3210
	성별	0.38	129.64***	0.3814
유행성	자아존중	0.19	20.13***	0.0651
	성별	0.29	77.92***	0.0889
	수입	0.12	13.27***	0.1306
	연령	-0.15	7.77**	0.1481

부분적 불일치도 보여지고 있다.

〈그림 1〉은 〈표 6〉과 〈표 7〉의 회귀분석표에 의해 만든 경로분석도이다. 성별과 교육이 자아존중을 거쳐 흥미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관리성·유행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연령과 수입은 자아존중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성별은 중요성·흥미성·정

숙성·심리적 의존성·심미성·관리성·유행성에, 연령은 홍미성·정숙성·유행성에, 연령은 홍미성·정숙성·유행성에, 교육은 동조성에, 수입은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로서 성별은 의복행동변인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이며 자아존중을 거치는 간접영향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 더 많으며 교육은 동조성에만 직접영향을 주며 자아존중을 거친 간접영향을 주는 변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아존중과 관리성은 정적 상관이 있고 동조성·정숙성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의복행동변인간에는 홍미성과 정숙성, 동조성과 심미성, 동조성과 유행성, 정숙성과 심리적 의존성, 정숙성과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서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자아존중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의복변인 중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의 남성보다 높았다.

셋째, 자아존중은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의복행동은 차이를 보여 홍미성·심리적 의존성·유행성은 미혼이 높게 동조성·정숙성은 기혼이 높게 나타났다.

네째, 성별과 교육은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의복행동변인에 대한 영향은 성별이 중요성에 영향을 주어 여성의 남성보다 높았고 홍미성에는 자아존중이 낮을수록 높고 여성의 더 높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높았다. 정숙성은 여성의 남성보다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심리적 의존성은 자아존중이 낮을수록 높고 여성의 남성보다 높았다. 심미성은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남성보다 높았으며 관리성은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남성보다 높았고 유행성은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여성의 남성보다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변인이었다.

다섯째, 성별과 교육은 자아존중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홍미성·심리적의존성·심미성·관리성·유행성에 영향을 주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성별이 중요성·홍미성·정숙성·유행성에, 연령은 홍미성·정숙성·

유행성에, 교육은 동조성에, 수입은 유행성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인구통계학적 범인과 자아존중 및 의복행동 간에는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범인을 다루는 다각적인 분석을 하는 연구와 성인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1) Ryan, Mary Shaw: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82-85, (1966)
- 2) Geitel Winakor, Bernatta Canton, and Leroy Wolins, Perceived Fashion Risk and Self-Esteem of Males and Females, *Hame Economics Research Jour.*, 9, No. 1, (1980)
- 3) Carolyn Humphrey, mary Klaasen and Anna M. Creekmore,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No. 4, (1971)
- 4) 고은기,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5) 김순구,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고교생 남녀·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6) 강경자, 서영숙, Maslow의 기본욕구가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의류학회지*, 13, No. 1, 1~12, (1989)
- 7) 정희용, 임숙자, 노년기 여성의 자아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의류학회지*, 12, No. 3, 333-342, (1988)
- 8) Coopersmith, S: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218, No. 2, 95-100, (1968)
- 9) Gecas, V., Parental behavior and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esteem, *Sociometry*, 35, No. 2, 332-345, (1972)
- 10) 박아청 역, 현대 발달 심리학, 서울: 협성 출판사, 165-166, (1983)
- 11) Wells, L.E., & Marwell, G.,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Vol. 20, p 59 (1976)
- 12) 김경연,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17 (1987)
- 13) 정원식, 자아개념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p 3, (1968)
- 14) 이덕순, 아동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변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5) 김명자, 여학생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6, No. 4, 75-83, (1978)
- 16) Borgatta, Edgar F. and Lambert, William W.; Handbook fo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 769-770, (1968)
- 17) Rosenberg, Morris,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p 32, (1979)
- 18) 김영준, 고교생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도시와 지방을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65, (1977)
- 19) 박춘심,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 No. 1, 97-116, (1976)
- 20) 이미숙, 아동복의 선호디자인 특성 및 성격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1982)
- 21) Drake, Mary Frances & Ford, Imogene 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No. 5, 283-291, (1979)
- 22) Ford, Imogene M. & Drake, Mary Frances,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No. 2, 189-196, (1982)
- 23) Parrish, P.C., Self-perception relative to selected clothing attitude and practices and clothing usage,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p 44, (1975)
- 24) 이경순·강혜원,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위와의 상관연구-의복만족도·과시성·유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6, No. 1, 1-8, (1982)
- 25) 김소연·조필교, 성인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관련변인 연구-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2, No. 2, 159-167, (1988)
- 26) 장상희, 대도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부산시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 연구, 제 1 호, 49-64, (1983)
- 27) 이영선, 자유-보수 주의적 태도와 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연구-유행과 동조성-개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 8, No. 1, 69-74, (1984)
- 28) 김병미,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Vol. 13, No. 3, 233-238, (1975)
- 29) Creekmore, A.M.;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 Vol. 8, No. 3, 203-215, (1980)
- 30) 손문경, 도시주부의 자아실현성과 의복의 개성-동조성 변인간의 관계-서울·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37, (1987)
- 31) 藤原康晴, 女子大生の衣服の關心度と自尊感情との關係, 日本家政學雜誌, Vol. 33, No. 10, 548-552, (1982)